

학교앞도 어린이공원앞도 주정차 차량 즐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둘러보니

2개 차선 차량 20여대 점령
시간 지날수록 차량들 늘어
화물차량은 짐 하차 작업
한 달 시범기간 신고 건수
전남, 인구 대비 전국 최다

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초등학교 정문 앞은 물론, 아이들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불법주정차량은 6467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341건, 서울 757건, 전남 593건, 인천 533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불법주정차 정도를 알 수 있는 주민 1만 명당 불법주정차 건수는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가 364건(6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61건), 여수(59건), 광양(46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안전시

문고 앱을 실행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를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현장 단속과 병행해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이날 광주시 서구 당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일대는 여전히 한 차선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일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 앞 도로 50m구간의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을 차량 20여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내걸렸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들 틈새를 찾아 주차하는 차량들마저 늘어났다.

당산어린이공원 인근 풍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도 차량 수십대가 줄을 지어 잇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북구 문흥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도로에는 25t 화물차량이 10여 분간 차를 세워놓고 짐을 내리고 있었다.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주변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3일,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광주·전남 등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즉시 신고가 가능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 개선 광주북부경찰 공모전 개최

광주북부경찰이 신호등이나 신호체계, 교통시설물 등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3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오는 20일 까지 북구내 주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기 시설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 주민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응모방법은 현장 장소사진과 개선내용을 작성해 교통안전계 공용 경찰 폴리폰 번호로 문자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교육청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 무산...시 "예산 부족" 반대

초중고 20만여명 급식 대신 공급
식재료 공급업체·학부모 아쉬움

광주교육청이 학생들 가정에 '2차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의 이견으로 공급이 무산됐다. 전남도는 이미 2차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을 마친 상태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총 71억원 예산을 들여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20만 4000여명) 가정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1인당 3만 5000원 상당)를 공급하자고 지난달 중순 광주시에 제안했다.

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등이 이뤄진 지난 5월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 중 시가 70%, 시 교육청이 30% 각각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라 전체 예산(올해 기준 869억원)의 70%는 지자체가, 30%는 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협조' 없이는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 사업이 진척될 수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차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 이후에도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해 일부 학교가 휴업하고, 전체 학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 등교가 이뤄져 급식 일수가 줄어들었다"며 "2차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2차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이 일단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고 코

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농산물 가족 꾸러미 공급이 무산되면서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부모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식재료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5월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공급해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습통이 트였다"며 "지자체가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 역시 "친환경쌀, 잡곡 등 곡류와 야채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가 가계에 보탬이 됐다"며 "1학기 내내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급식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 32도

광주·전남지역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광주·전남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풍암동 32.7도, 나주 다도면 33도, 화순 북면 32.4도, 완도 신지면 31.4도 등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대다수 지역이 30도를 웃돌았다.

지난 2·3일 밤 사이 광주에서는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광주(25.6도) 뿐만 아니라 해남(26.4도), 영광(26도), 진도(26.9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

야가 발생했으며 목포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4일 광주와 나주·화순 등 전남 북부지역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기온 23~25도, 최고기온 28~3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과 낮 동안의 일사가 더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지역 교육부 교사정원 감축 반발 확산

교육참여위원회 철회 촉구

교육부의 내년 교원 감축 계획 발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전남 지역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부가 나서서 늘어선다. 전남 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도 23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들은 3일 전남도교육청 기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1년도 전남 중등교사 정원 감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 발표 후 통지된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초·중·고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고, 중·고·고교

사 정원을 224명 감축하라는 것"이라며 "학생 수 기준에 따라 교사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당장 내년에 전남 공립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평균 1명씩 교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은 전국 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나 학교의 분산도가 매우 크고, 초·중·고등학교 60% 이상이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이중 44%의 학교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면서 정부의 단순 논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이날 전남도교육청 현관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무분별한 교사정원 감축을 철회하라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무료 심리상담 '청년상담 마음톡톡' 운영

광주시 북구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심리상담을 지원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주거·결혼 등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역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3가지로 이뤄진다. 심리검사는 성격,

정신건강, 진로 학습 등에 대한 비대면 모바일 검사 후 전문가의 해석상담으로 진행된다. 개인상담은 스트레스 진단, 감정 코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대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대면 상담은 상담사와 협의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전화 또는 화상상담이 가능하다.

또래 청년들 10여 명이 함께하는 집단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서부교육청 10일~24일 사립유치원 위생점검

광주서부교육청이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시·도 사립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맞물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서부교육청은 개인위생 관리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급식 설비·기구 세척, 소독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생활관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줄서기·소독제 사용·배식 방법 등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상담전화